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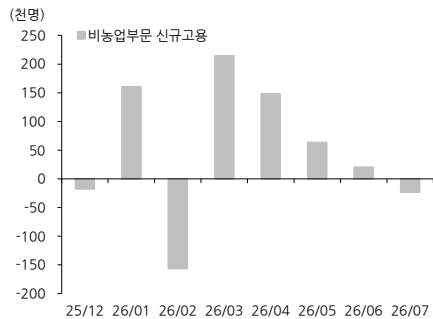
Macro Review

7월 미국 고용: 약해지는 활력

▶ Economist 최규호 choi.gh@hanwha.com 02-3772-7720

[주요 데이터 및 차트]

7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2.3만 명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실업률 전월대비 0.1%p 하락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고용 둔화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용 침체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기업들은 채용에 보수적이고 노동공급 부담도 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농업부문 고용 예상치 하회

7월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은 전월대비 2.3만 명 줄어들며 예상치(+8.0만 명, Bloomberg 기준) 하회. 5월과 6월 고용도 하향 조정. 건설업(+2.2만 명)과 일부 서비스업 고용이 개선되며 민간(+3.0만 명) 고용 규모는 유지됐지만, 정부(-5.3만 명) 고용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 소매업(-1.9만 명)과 금융업(-1.4만 명) 고용 감소 폭도 확대

실업률은 4.1%로,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월대비 0.1%p 하락. 취업자와 실업자의 동반 감소가 이어진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고용률(58.9%)도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대비 0.1%(전년동월대비 3.2%) 상승. 제조업(+0.4%) 임금 상승세가 강해졌지만, 소매업(-0.2%)과 금융업(-0.2%) 등 서비스 부문 임금 상승 압력이 대체로 약해졌기 때문

구인수요와 노동공급 부담 확대

노동시장 둔화 지속 전망. 경기민감 서비스 부문 고용이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월드컵 특수 효과도 사라졌음.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감소했고 파트타임밖에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구직자 또한 올해 가장 많았음. 실업률이 하락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 또한 노동수요 개선보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영향이 컸다고 판단. 기업들이 채용도 해고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기조가 이어지며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활력 약화

최근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민자들의 임시보호신분(TPS) 상실로 노동공급 부담 확대. 주요 취업허가 만료가 7월 조사 기준일 이후 발생한 만큼 이민 규제에 따른 노동공급 부담은 8월 이후 더해질 가능성

다만 고용 침체로 단정하기는 이른. 영구 실업자와 고용단념자가 늘어나지 않았고, 고용 감소도 일부 업종에 집중됐기 때문. 구직에 걸리는 시간 또한 단축. 향후 고용은 약해지겠지만, 급격한 실업률 상승보다는 노동시장의 완만한 활력 저하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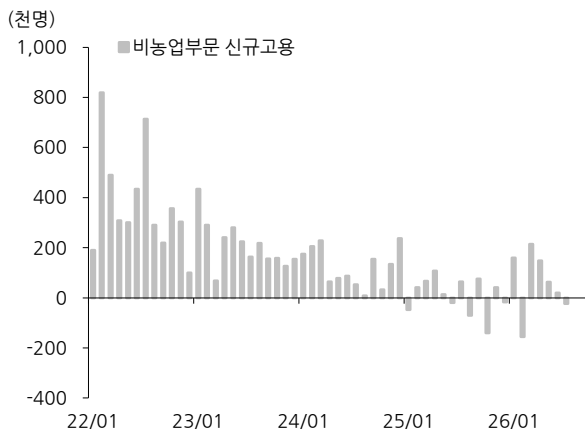
[표1] 미국 고용보고서 요약

(천명, %)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비농업 신규고용	76	-140	41	-17	160	-156	214	148	63	20	-23(▽)
민간	68	13	72	-7	180	-148	202	150	61	30	30(-)
상품	11	-20	25	-21	45	-21	33	6	3	14	25(△)
서비스	57	33	47	14	135	-127	169	144	58	16	5(▽)
정부	8	-153	-31	-10	-20	-8	12	-2	2	-10	-53(▽)
실업률	4.4		4.5	4.4	4.3	4.4	4.3	4.3	4.3	4.2	4.1(▽)
경제활동참가율	62.5		62.5	62.4	62.1	62.0	61.9	61.8	61.8	61.5	61.4(▽)
고용률	59.7		59.6	59.7	59.4	59.3	59.2	59.1	59.2	59.0	58.9(▽)
시간당 평균임금	3.8	3.9	3.9	3.7	3.7	3.7	3.4	3.6	3.3	3.4	3.2(▽)
제조업	4.1	4.3	4.3	4.4	4.2	4.3	3.6	4.3	4.0	3.9	3.8(▽)
서비스업	3.9	3.9	3.9	3.7	3.6	3.6	3.3	3.4	3.1	3.2	2.9(▽)

주: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이전치 대비 상승(△), 하락(▽), 보합(-)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2.3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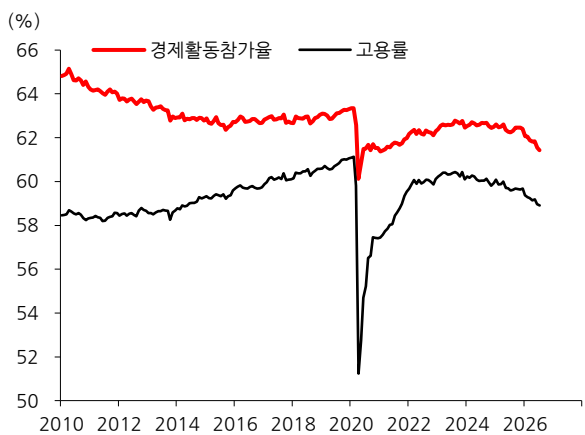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실업률 전월대비 0.1%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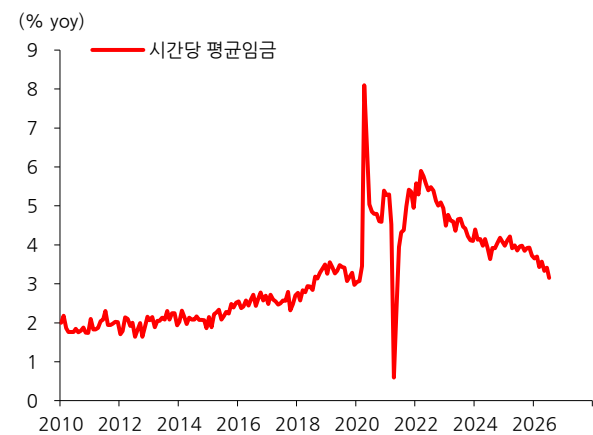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경제활동참가율 전월대비 0.1%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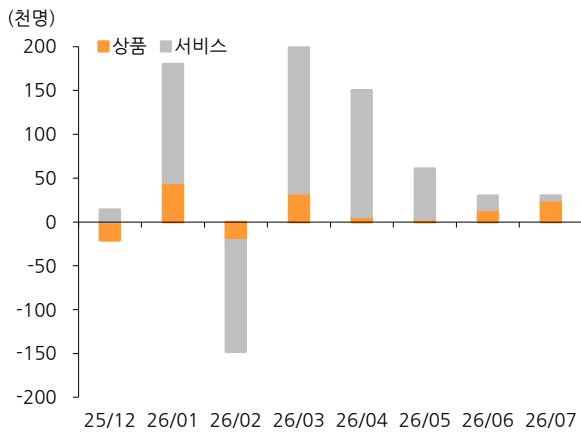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 압력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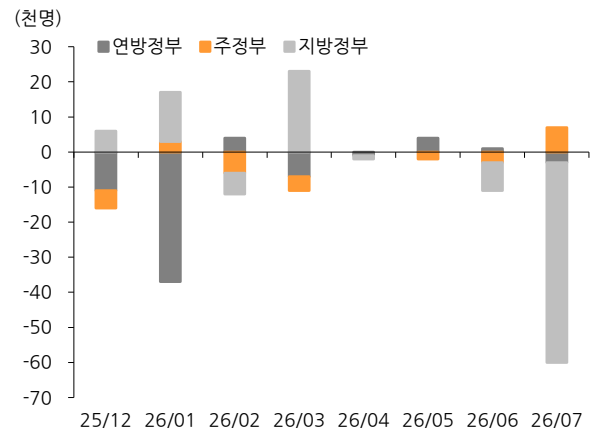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민간: 전반적인 둔화 폭은 크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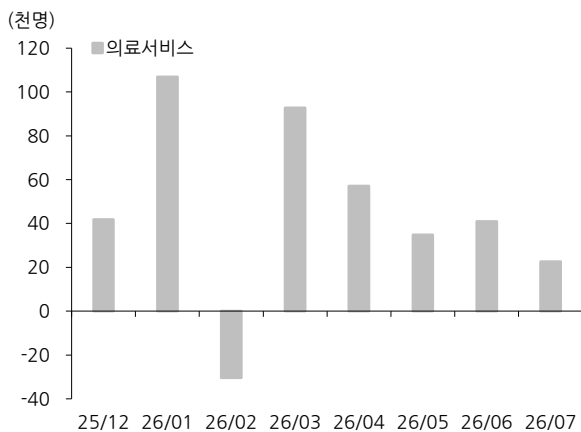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정부: 지방정부 고용 큰 폭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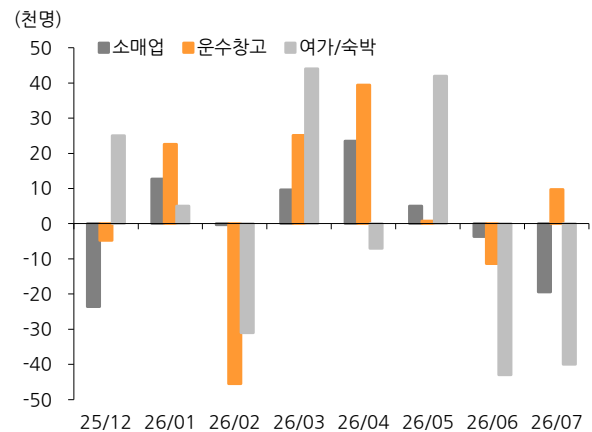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의료서비스 고용이 다소 약해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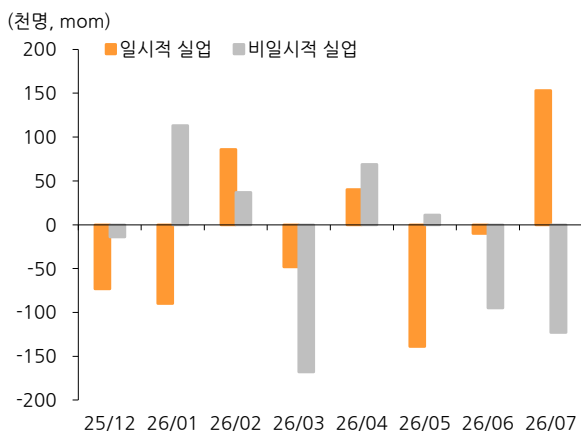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여가/숙박 중심으로 서비스업 고용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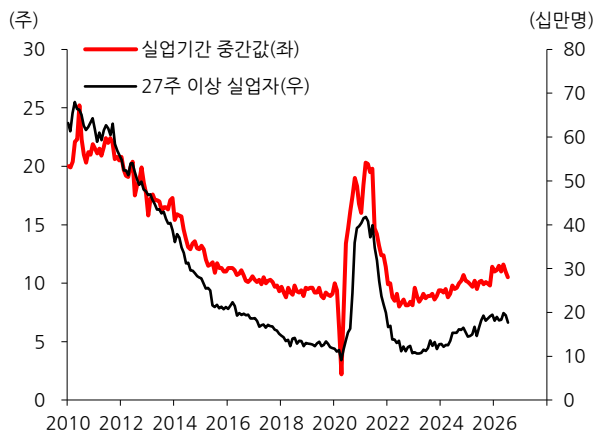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일시적 실업 증가 vs. 비일시적 실업 감소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장기 실업자도 2 개월 연속 줄었음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